

KIA 마운드 중심 '92라인'이 있다



유창식

박준표

한승혁

홍건희

트레이드로 뒤늦게 고향팀 합류
좌완 유망주...주말 두산전 선발

2013년 늦깎이 프로 데뷔
시범전서 두각...1군 엔트리

덕수고 에이스 '2010 최대어'
151km 직구...불펜 중심 활약

스프링 캠프서 절치부심
패전조서 선발로 대반전



KIA 마운드가 젊고 강해졌다. 그 중심에 '92라인'이 있다.

2010년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당시 화제의 중심에 섰던 두 고졸 투수가 있다.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으며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덕수고 에이스 한승혁과 광주일고 에이스 유창식이 그 주인공이었다. 유창식은 7억원의 초대형 계약으로 한화 유니폼을 입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한승혁은 깜짝 등장으로 드래프트 장을 술렁이게 했었다.

한승혁은 151km의 직구를 뿌리며 당시 지명 대상자 중 가장 빠른 볼을 보유했던 선수로 꼽혔지만 미국 진출설이 나오면서 드래프트에 정식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구단들이 미국 진출로 1차 지명권을 날릴까 봐 망설이는 사이 8번째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된 KIA가 한승혁의 이름을 외쳤다. 순간 행사가 시끌시끌해졌고, 이름이 불린 뒤 한승혁이 등장해 KIA 유니폼을 입으면서 다시 한

번 행사장이 술렁였다. 2010년 최대어로 화제의 인물로 꼽혔던 92동기는 유창식의 트레이드로 동료가 됐다. 여기에 봄이 시작되기 전까지 올 시즌을 예측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친구 홍건희와 박준표까지 1군 무대에 자리를 잡으면서 '92라인'이 KIA 마운드의 중심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순고 출신의 홍건희는 한승혁에 이어 2차 1번으로 KIA의 지명을 받은 유망주. 2010년 시범경기에서 배정된 투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프로의 벽은 높았다. 부진이 계속되면서 상무로 떠났던 그는 지난 가을 팀으로 돌아왔다. 야심차게 시작한 새 시즌이었지만 스프링캠프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지 못했다. 절치부심 이를 악물 홍건희는 '몰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봄을 준비했고 처음 개막 엔트리에 합류했다. 패전조에서 시작했던 홍건희는 조금씩 힘을 더하면서 선발로도 마운드에 섰다.

박준표도 봄을 맞이까지 시련이 있었다. 2년째 동강대를 졸업하고 넷 중 가장 늦은 2013년 프로에 뛰어난 박준표는 이번 스프링 캠프 출발을 앞두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

키나와 캠프 명단에서 탈락했다. 대만 2군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했던 박준표는 시범경기에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뒤늦은 출발에도 개막 엔트리를 통과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던 홍건희와 박준표가 올 시즌 먼저 자리를 잡은 뒤 한승혁과 유창식이 새로운 전력에 됐다. 캠프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였던 한승혁은 옆구리 부상 탓에 눈물을 삼켜야 했다. 2군에서 칼을 갈았던 한승혁은 기회가 찾아오자 여전한 강속구와 한결 안정된 제구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유창식의 트레이드로 마운드 조각에 변화가 있다. 임준혁까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홍건희가 중간으로 이동해 힘을 보태게 된다. 유창식은 kt와의 주중 경기에서 점검을 한 뒤 주말 두산전에서 선발로 투입할 방침이다.

좌완 유창식과 강속구 우완 한승혁, 예비역 홍건희, 사이드암 박준표. 출발선과 앞선 성적은 달랐지만 각기 다른 매력과 실력으로 서로 의지하고 경쟁을 하며 KIA 마운드를 움직이고 있는 92선구수들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특·특

유창식, 몸 컨디션 질문에 "200%입니다"

▲"너무 많잖아." = 특타를 지휘하기 위해 그라운드에서 오른 홍세완 타격 코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무 많잖아"라며 당황한 홍 코치. 특타를 하겠다고 박찬호, 오준혁, 이흥구, 김호령, 이은총, 고영우가 한꺼번에 몰려나온 것이다. 제자들의 기특한 모습에 웃음이 터진 홍세완 코치는 잠시 고민을 한 뒤 이흥구의 이름을 불렀다. 홍세완 코치는 "저 치겠습니다"며 손을 든 이흥구를 "오늘 경기에 나가야 한다"며 덕아웃으로 돌려보낸 뒤에야 훈련을 진행했다.

▲"연차가 막내예요." = 투수진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박준표. 그의 임무는 물 쟁기였다. 투수진들이 외야에서 훈련을 하는 만큼 막내 선수가 물을 쟁기는 게 물이다. 주삼주삼 물을 쟁겨 들고나가던 박준표는 "3년차 막내다. 동기들이 먼저 들어와서 연차로 후배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1군에서

뛰고 있는 빠른 93인 한승혁을 비롯한 홍건희·유창식 등 92 동기가 모두 고졸 출신. 박준표는 동강대에 2년을 더 보낸 뒤 입단을 하면서 연차 막내다.

▲"200%입니다." = 고향팀으로 트레이드되어 처음 고향팀 경기장에 선 유창식. 김기태 감독은 유창식을 주중 경기에서 불펜으로 투입한 뒤 주말 선발로 기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중임을 맡게 된 유창식. 몸 상태는 괜찮냐는 질문에 "고향팀에 와서 좋다. 200%의 상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무등산 공기 좋더라고." = kt 조범현 감독에게 익숙하고 반가운 광주다. 올 시즌 처음 광주 원정에 나선 조범현 감독은 12일 오전 일찍 무등산을 다녀왔다. KIA 감독 시절에도 무등산을 즐겨 찾았던 조범현 감독은 "공기가 좋더라"며 광주를 찾은 소감을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불보다 뜨거운 '강·추 라인'

〈정호〉 〈신수〉

강, 필라델피아전 첫타석 2루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두 경기 연속 장타를 날리며 메이저리그에서 타격감을 과시했다.

강정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벙크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4연전 첫 경기에서 3루수 6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2루타를 뽑아냈다.

0-1로 뒤진 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2볼-1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제롬 윌리엄스의 시속 약 146km(91마일)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 오른쪽을 찌르는 2루타를 날렸다.

그러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날 3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한 강정호는 시즌 타율 0.333(51타수 17안타)을 유지했다. 선발 출전 경기 타율은 0.385에서 0.381(42타수 16안타)로 조금 하락했다.

전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호 홈런과 결승타를 기록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장타를 생산했다. /연합뉴스



추, 시즌 4번째 멀티히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4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작성하고 타율 2할 회복을 눈앞에 뒀다.

추신수는 1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2안타를 치고 타점과 득점 1개씩을 수확했다.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11'로 늘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194(98타수 19안타)로 높였다.

텍사스는 8-2로 완승했다. 텍사스는 레오니스 마르틴 대신 추신수를 토타자로 기용한 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부터 6승 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날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연타석 2루타를 치고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온 추신수는 3-0으로 앞서간 2회 무사 3루의 두 번째 타석에서 깨끗한 중전 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지난 7일 탬파베이와의 경기 이래 4경기 만에 나온 타점으로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13개가 됐다. /연합뉴스

대한야구협회장에 박상희 부회장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협회를 새로 이끌 수장으로 박상희(64) 협회 수석 부회장이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1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1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표를 얻어 김중업 협회 회장 직무대행(9표)을 1표 차이로 제치고 제2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17년 2월까지 1년 9개월간이다.

새누리당 재정위원장인 박 회장은 중소기업진흥회 회장이자 미주금융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이병석 전 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겸직금지 및 사퇴 권고에 따라 자진해서 사퇴한 이후 협회는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협회는 현재 사무국장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사무국장은 "협회에 비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회장의 사임으로 2017년 2월까지 1년 9개월의 잔여임기 동안 협회를 이끌어야 하는 박 신임 회장은 내분으로 드러난 협회의 난맥상을 바로 잡는 동시에 임기 동안 한국 아마추어 야구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연합뉴스